

# 참회의 기도문

참회의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방법

---

참회의 기도문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글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기도문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회의 기도문 1 - 일상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행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돌아보니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동료들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불만을 쏟아낸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 했는데, 오히려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말로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필요 없는 험담과 비판, 거짓과 과장으로 점철된 말들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허가 생명의 말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시기, 질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제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이기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겸손함과 온유함이 제게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제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기도문 2 - 영적 나태함을 회개하는 기도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3)

---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깊이 회개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였던 제

자신을 용서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살아온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 없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하는 영적 생활을 소홀히 했습니다. 또한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의 통로인데,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기도만 드렸습니다. 간절함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위급할 때만 주님을 찾고, 평상시에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기를 꺼려했으며,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동체의 일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제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전도의 사명을 등한시했습니다.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지 못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복음의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영적 나태함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 번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기도문 3 -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2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간관계에서 저지른 수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인연들을 제가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가족에게 지은 죄부터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장 못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하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제 기분에 따라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가족이라는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기보다는 이용할 수 있을 때만 가까이하고, 어려울 때는 피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들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고, 뒤에서 험담하며, 질투와 시기심으로 관계를 망쳤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관계에서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동료들과 경쟁만 하려고 했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보다는 나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선배들에게는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섬김의 리더십보다는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차가운 마음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관계에서의 죄들을 용서해주시옵소서. 제가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먼저 화목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섬김과 배려의 마음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기도문 4 -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회개하는 기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6)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깊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제 고집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지만 돈과 명예,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지만 세상 일을 우선시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음성을 무시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았을 때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않았고,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불평했고,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며 등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저의 계획보다 훨씬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제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평가하려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제 것인 양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십일조와 헌금을 드릴 때도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정을 사용하기보다는 제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의미 없는 일들로 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주님과 교제 시간, 가족과의 시간, 교회에서의 봉사 시간을 소홀히 하며 세상의 헛된 일들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불순종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기도문 5 - 마음의 정결함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0)

정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지만, 속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중적인 제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며,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만과 자만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제 능력인 양 착각하며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을 가졌으며, 제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축복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남이 잘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비교와 경쟁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정욕과 탐욕의

죄를 고백합니다. 눈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아 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순결하지 못한 생각들로 마음을 더럽혔고, 끝없는 탐욕으로 만족함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거짓과 위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혼자 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마음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움 대신 사랑을, 교만 대신 겸손을, 시기 대신 기쁨을, 탐욕 대신 만족을, 거짓 대신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뻐하시며, 언제나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